사)샬롬기억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

2025년 4분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			
일 시	2025. 12. 5.(금) 11시 30분	장 소	청담면옥
참 석 자	○ 참석자: 총 6명 ○ 불참 : 2명(박순만, 윤진영) - 참석 위원: 한효익, 이충희, 조진현, 한종철, 정진아, 최희선		
회의내용	**1. 개회 선언** 한효익 운영위원장 : 바쁜 연말 2025년 샬롬기억학교 4분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개회를 선언하다. **2. 성원보고** 한효익 운영위원장 : 운영위원회 위원 총 8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, 시설 운영 규정 제2절 제15조에 따라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. **3. 인사** 한효익 운영위원장 : 운영위원장 인사를 시작으로 참석한 운영위원 모두 인사를 하다. **4. 전차회의록 보고** 최희선 위원 :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전차회의록 낭독은 서면으로 대체하다. **5. 보고 및 심의안건** **1) 제1호 의안 : 2025년 세입·세출 결산 추경 예산(안) 건** - 정진아 위원이 2025년 세입·세출 결산 추경 예산(안)에 대해 설명하다. - 금년도 종사자 입·퇴사에 따라서 보조금수입과 인건비 지출이 감소하였음을 알리다. - 세입의 경우, 후원자 모집 감소에 따라 후원금수입이 감소되었고, 물가 상승에 따른 식대 인상과 사업주 훈련과정, 중장년 경력지원제사업 등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등 참여에 따라 잡수입이 상승하였음을 알리다. - 세출의 경우,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상승에 따라 운영비 지출이 증가되었음과 생계비 절감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, 외부 공모사업 등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사업비 지출이 감소하였음을 알리다. - 조진현 위원 :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외부 공모사업 덕분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예산 절감이 가능하였음을 언급하며,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다. **2) 제2호 의안 : 2026년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 예산(안) 건** - 정진아 위원 : 2026년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 예산(안)에 대해 설명하다. - 2026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3.5% 상향 반영하여 보조금 수입과 인건비 지출이 증가함을 전달하다.		

	- 기억학교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이용자의 식비 자부담이 발생하여 입소비용수입 증가, AI 기반 전산인지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대해 설명하다. - 건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비품 수선 및 시설물 유지 관리비 증가를 알리다. **3) 제3호 의안 : 2025년 4분기 주요 사업 보고** - 프로그램 주요 내용으로는 제3회 서구 어르신 효잔치가 성황리에 끝마쳤으며, 함께하는사랑밭 김장김치로 함께하는 식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내 재가노인 어르신들과 함께 동네 친구 만들기를 주제로 김치를 담가보는 프로그램을 총 3회기 실시하였음을 보고하다. - 조진현 위원 : 정다운재가노인돌봄센터 어르신 또한 김장김치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도가 높았음을 설명하고 타 3개 재가노인돌봄센터 어르신 또한 과거 추억을 회상하고, 겨울철 든든한 먹거리 지원으로 인한 만족도가 높았음을 공유하다. - 정진아 위원 : 특히 10명의 어르신이 하루동안 기억학교 일일체험을 함으로써 기억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알리고, 기억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기획면에서 우수했던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다. - 우양재단 키오스크 먹거리 지원사업으로는 외식지원사업 및 소그룹 카페 체험을 통해 키오스크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음을 알리다. - 이충희 위원 : 법인 효잔치 행사를 통해 서구 내 어르신들이 다같이 모여 큰 잔치를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었음을 언급하다. - 사업 관련 내용으로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 국제교류협력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태국 방콕 사회복지사 2명이 3주간 다양한 실습을 체험하고, 노인복지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다. - 한효익 운영위원장 : 서로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하다. - 최희선 위원 : 간단한 영어가 가능한 직원과 번역 어플을 이용하여 법인 내 모든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,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사단법인 샬롬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였고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였음을 설명하다. - 조진현 위원 : 기관을 알리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음을 언급하자 모두가 동의하다. - 이어 종사자 간 팀워크 향상을 위해 기억학교 종사자 워크샵 종료 후, 1박2일 포항 일대 자체 워크샵을 진행하였음을 알리다. - 한종철 위원 : 워크샵을 통해서 종사자 간 서로를 알아가고, 한마음 한뜻으로 기관을 운영, 경증치매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사기를 진작할 수 있었던 기회로 작용하였기를 기원하다. - 한효익 운영위원장 : 그 외에는 회의 자료를 참고하고 의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자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다. **4) 제4호 의안 : 2026년 1분기 사업 수립의 건** - 최희선 위원이 2026년 1분기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 관련에 대해 설명하다. 사업 관련은 제5호 의안에서 다루기로 하다.

	5) 제5호 의안 : 지역사회 협력에 관항 사항 논의 - 정진아 위원 :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 개선 계획 방향에 관해 차례로 안내하다. 먼저, 기존 무기한 이용에서 최대 3년으로 이용기간을 제한하며 이용기간 관리제 도입을 통한 순환형 이용체계 마련에 대해 설명하다. - 이충희 위원 : 올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만큼 더 많은 지역사회 내 경증치매어르신이 기억학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계라고 답하다. 이어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대기 시간이 있으나, 기억학교는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추가 발언하다. - 정진아 위원 : 도덕적 해이를 막고,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무/유료 이용자의 식비 자부담이 발생할 예정이며, 이를 전산 및 태블릿을 활용하여 의료·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을 알리다. - 한종철 위원 : 스마트 시대 속에서 경증치매어르신이 소외되지 않고,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사업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다. - 정진아 위원 : 추가적으로 표준 운영매뉴얼 개발 및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, 부양 부담 감소를 위한 어플을 활용한 체계적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해서도 이어 설명하다. - 조진현 위원 : 2026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 기억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긴급돌봄, 틈새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조언하다. - 최희선 위원 : 의료와 돌봄을 통합하여 기억학교 사업을 잘 개선·운영해 나간다면 최적화된 통합돌봄서비스가 실현되지 않을까 답변하다. - 한효익 운영위원장 : 그 외에는 회의 자료를 참고하고 의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자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다 **6) 제6호 의안 : 기타 논의 사항** - 한종철 위원의 발제에 따라 혹한기 대책 수립 건에 대해 위원들이 논의하다. - 정진아 위원 : 인근에 위치한 영락양로원의 경우 겨울철이 되자 대상자 수가 감소하였음을 설명하다. 혹한기나 혹서기에 숙식과 같은 주간보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양로원과 같은 지역사회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노인복지서비스간 경계를 허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다. - 참석한 위원 모두가 의견을 일치하다. **6. 폐회** 한효익 운영위원장 : 기타 의견 여부를 묻고 전원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선언으로 회의를 마치다.
정책건의	- 건의사항 없음

일 시 : 2025. 12. 05.(금) 기록자 : 윤진영 종사자 대표	**2025년 4차 운영위원회**	주관 : 사)샬롬 샬롬기억학교

첨부사진



건의사항 및 실천사항	

2025년 4분기 운영위원회

(사) 샬롬　　샬 롬 기 억 학 교

한 효 익 (서명/인)

박 순 만 (서명/인)

이 충 희 (서명/인)

조 진 현 (서명/인)

한 종 철 (서명/인)

정 진 아 (서명/인)

윤 진 영 (서명/인)

최 희 선 (서명/인)